

## 백두령장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계시어 사회주의조선은 끄떡없다

### 국제사회계가 격찬

백두의 기상 담력으로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도전을 단호히 짓부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가 국제사회계에서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는 공동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11년 12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존경하는 김정은원수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었다.

김정은원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조선은 주체의 핵강국, 로케트강국으로 비상히 강화발전되었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국가령도자이다.

그이께서는 대단히 열정적이고 기백이 넘치시며 담대한 배짱을 지니고계신다.

그이께서 계시어 사회주의조선은 끄떡없으며 적들은 멸망의 구렁텅이에 더욱 빠져들고있다.

존경하는 김정은원수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 김정일대원수와 꼭 같은 백두령장이시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칠레지부 공식대표는 세계인론들의 초점속에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있는 김정은최고사령관의 군현지시찰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해 평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특징은 우선 시간강적인 한계가 없다는 것이다.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는 새해 정초부터 추운 겨울날, 무더운 여름날에 관계없이 끊임없는 군현지시찰을 이어가신다. 명절날과 일요일도 병사들을 찾아 현지시찰의 길에서 보내시는 때가 많다. 그 현지시찰이 며칠동안 계속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 찾으시시는 곳은 대단히 다양한데도 한계가 없다.

특징은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세심하다는 것이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의 군현지시

찰에서 보다 특징적인것은 전락군의 싸움준비완성에 커다란 힘을 쏟고계신다는 것이다.

콜롬비아공산당은 인터넷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렸다.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의 지휘부로부터 시작하여 중대와 최전방초소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단위들이나 다 찾아가신다.

그중에는 멀고 험한 평길을 넘어 찾으신 것은 산속의 이름없는 초소도 있고 파도세찬 바다를 헤쳐가신 외진 섬초소도 있다. 지역은 조선의 북과 남을 가른 군사분계선상, 말그대로 적들의 숨소리마저 들리는 판문점초소도 있다.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는 군부대들을 찾으신 때마다 전투준비상태나 군인들의 훈련을 보아주시기에 앞서 병사들의 생활부터 료해하신다.

병사들을 만나시어는 나이는 몇살이고 고향은 어디이며 부모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군사복무는 힘들지 않는가 등을 다정히 물어

주시며 육친의 정을 기울이신다.

가나민족민주대회 부총비서는 김정은 각하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것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조선을 희망하는 동맹도 바라보는 세계 진보적인 류의 커다란 행운으로 된다고 말하였으며 수리아 디마스그총합대학 정치학부 강좌장은 국제사회는 김정은각하를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어 조국과 인민의 안전은 물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담보하신 가장 훌륭한 최고사령관으로 칭송하고있다고 언급하였다.

주체사상연구 원단전국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것은 조선에 있어서 위대한 사변으로 된다.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이 조선의 사회주의를 압살하려고 미쳐날뛰고있지만 김정은동지의 세련된 령도가 있어 조선인민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 불멸의 꽃축전장에 뜨겁게 굽이친 위인 칭송의 대하

### 제22차 김정일화축전장을 수십만명이 참관

절세위인에 대한 칭송의 꽃바다가 2월의 조국강산을 붉게 물들이며 아름답게 펼쳐진 속에 제22차 김정일화축전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축전기간 43만여명에 달하는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과 인민군대원, 학생들,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이 불멸의 꽃축전장을 참관하였다.

뜻깊은 광명성절에 만도 김일성종합대학, 만경대혁명학원, 농업성 등 200여개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이곳을 찾았다.

이것은 절세위인이시며 인류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군대와 인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그리움과 열화같은 경모심의 송고한 표현이다.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축전장을 찾은 참관자들은 붉고붉은 김정일화들로 영생축전의 꽃바다를 펼친 전시대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한평생 송고한 인민사랑으로 온넛을 불태우시며 끊임없는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리르는 참관자들의 가슴마다에는 절세위인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의 정이 흘러넘치었다.

태양의 위엄을 총대로 받들어 갈 인민군장병들의 철석의 의지가 어려있는 인민무력성,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의 전시대들과 인민보안성전시대에도 참관자들의 물결이 그칠새 없었다.

이번 축전에 수백상의 불멸의 꽃들을 전시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전시대는 아버지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혁명의 불꽃을 역세대로 물려주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백두에서 개척된 민족자주위를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려는 조선청년들의 사상정신세계를 잘 보여주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며 혁명적의 꽃바다를 펼친 전시대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건실건 제공업성, 경공업성, 봉화지도국 등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전시대에도 비껴있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전시대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온 겨레를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해외동포들의 강화발전을 위한 애국애족의 한결같이 힘있게 불려오시신 민중의 어버이에 대한 경모의 정으로 가슴 뽐이었다.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저명한 인사들, 친선단체들과 주조교 및 국제기구대표부들의 지성이 깃든 김정일화들을 바라보며 참관자들은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천출위인상을 다시금 새겨안았다.

전체 참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본사기자

## 《조선 열병식을 통해 국력 시위》

### 세계 언론 들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조선인민군창건 70돐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된 소식을 세계인론들이 광범히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인민군창건 70돐에 즈음하여 평양에서 열병식이 진행되었다.

김정은령도자께서 여기에 참석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강력한 보검으로서의 인민군대의 사명은 변함없다고 천명하시었다.

수리아의 사나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열병식에 참석하시어 명절을 맞는 군대와 인민을 축하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연설에서 조선이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되었고 하시면서 조선

인민군이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고 싸움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침략자들이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조금도 침해하지 못하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고 보도하였다.

쿠바의 프렌차 라미나통신, 몽골의 몬짜메통신, 캄보디아통신, 《크메르 타임스》, 인디아의 인터넷통신 보이스 오브 밀리언즈, 인도네시아의 안파라통신, 신문 《폼바스》, 네덜란드 신문 《머저두르》,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주체-네팔》, 타이신문 《방코 포스트》, 중국의 신화통신, 환구망, 일본의 교도통신, 《도쿄신보》, 《니혼케이이시신문》, 《아사히신문》, 《마이니찌신문》, 중앙아시아

인터넷통신 씨에이-뉴스, 로씨야의 인메르확스통신, 신문들인 《이즈베스찌야》, 《프메르완트》, 《볼바라슈》, 《즈베라》, 로씨야 24TV방송, 텔레비TV방송, 인터넷잡지 《렘취워》, 인터넷홈페이지들인 《쁘리우르 모스크바》,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코의 인터넷통신 노빈기, 벨스까신문 《제츠보스플리라》, 프랑스의 AFP통신, 신문 《유에스에이 투데이》, CNN 방송, 베네수엘라의 신문들인 《엘 유니베르살》, 《올머디스 노르세아스》, 《엘 문도》, 인터넷신문 《MSN》, 텔레우르

TV방송, VTV방송과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전국위원회, 민주공화국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 백두산체스조선친선협회, 벨스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탐구를 위한 국제친선발기, 이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 및 친선협회, 에스빠냐 마스주체사상연구소, 브라질선군정치연구센터, 나이지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현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들을 비롯한 광범한 세계언론들이 《북조선 조선인민군창건 70돐을 맞으며 열병식 진행》, 《김정은령도자 열병식에서 축하연설》, 《김정은령도자 조선이 세계적인 군사강국이 되고천명》, 《조선 열병식을 통해 국력 시위》 등의 제목들로 우와 같은 소식을 전하였다.

언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과 동영상들을 모시었다.

본사기자



## 조국 소식

### 총공세의 기상으로 가설배전선공사 결속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위한 준비작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전력공업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위한 가설배전선공사를 짧은 기간에 결속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전력공업성에서는 겨울철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현지를 답사하여 가설위치를 확정하는 한편 전력설비와 자재보장사업을 선행시키기 위한 조직과 지휘를 박력있게 전개하였다.

전력망건설에서 자신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강원도송배전부 설계원들은 공사초기부터 로선측량을 앞세워 현실적이며 실리있는 설계를 내놓았다.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건설지시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뜨거운 마음안고 평양326건설

공장과 경성여자공장에서 내부예비와 잠재력을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공사에 필요한 전선들과 각종 예자, 차단기, 단로기 등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였다.

강원도송배전부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해당 단위와의 연계밑에 생산된 100여대의 전주를 신속히 실어오기 위한 전투를 벌여 공사를 결속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 건설에 애국의 한마음을 바쳐갈 일년안고 송배전부와 원산, 문천시, 안변군송배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립체전을 벌려 현장지휘부와 건설장들에 이르는 구간의 전주세우기와 선늘이기, 예자설치 등을 완성하였으며 수백km의 송전선공사도 진행하였다.

전력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배전선공사를 결속한 그 기세로 공사장구역의 송전선시설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다양하고 질 좋은 가방들을 많이 생산하고있다. — 평양가방공장에서 —

## 독도가 그려진 통일기는 계속 휘날린다

제2차 세계대전후 일본은 패망과 함께 독도가 저들의 섬이 아니라는것을 국제사회앞에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당시 미국과 영국이 작성한 지도도에도 독도가 조선의 령토로 명백히 표기되어있다.

독도가 우리 나라의 고유한 령토라는것은 력사적사실자료들과 법률적근거에 의해서도 이미 확증되대로 되였다.

《삼국사기》, 《고려사》, 《성종실록》 등 우리 나라의 수많은 력사책들은 물론 《조선연안수로집》, 《단국선지》, 《지마해현지》 등 일본측 자료들에도 엄연하게 독도가 조선의 령토로 되어있다.

독도가 우리 나라의 신성한 령토의 한부분이라는 사실자료들은 최근년간에도 계속 발굴되고있다.

2016년에 일본에서 공개된 옛 지도인 《일본해국도》에도 독도보다 작은 섬에까지 산표시가 되어있지만 울릉도와 독도에는 산표시가 하나

도 없다.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나라 령토였기때문에 애당초 측량대상에서 제외되었던것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지질학자이며 지리교과서 저자였던 야마가미가 집필한 교과서에 실린 아시아지도에는 독도가 일본부속의 경정교과서로서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토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물이다.

이러한 사실자료들은 독도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령토임을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들에 비하면 때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독도가 조선의 령토라는데 대해서 한 단 한개의 의문도, 반론도 있을수 없다.

일본이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하는것은 천만부당한 령토강탈행위이다.

그런데 철면피한 일본은 독도가 제 땅이라고 지금도 우기며 도발소동을

퍼우고있다.

얼마전 사람들의 레앙이 담긴 도쿄의 한복판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그 무슨 《전시판》이라는것이 세워진것도 그 하나의 실례이다. 여기에 코를 들이민 오기나와 및 북방령토대책당상이라는자는 독도가 저들의 《땅》이라고 패배를 들면서 60년이상이나 그 누구에 의해 《불법점거》되어있다는 일로당도않은 망발을 쫓아냈다. 일본문부과학성은 최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에서도 일본의 《독도령유권》 교육용 자료를 배포하는 내용이 담긴 학습지도요령개정안을 꾸며냈다.

이뿐이 아니다. 얼마전 내각관방장관 사가는 너자빙상호에서 북단일림이 겨울철울림평경대회출전을 위한 훈련경기를 독도가 그려진 통일기를 사용한것을 질고들면서 《독도의 령유권에 관한 일본의 령장에 비추어볼 때 받아들일수 없다》고 야단을 쳤다. 조선민족이 제 땅에서 하

는 국제경에서 조선의 령토가 그려진 기발을 흔든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독도는 력사적으로 보나, 지리적으로 보나, 국제법적원칙에서 보나 철두철미 조선민족의 신성한 령토이다. 따라서 통일기에 독도를 표기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평화와 친선을 기본리념으로 하는 울림평경대회와 조공도 배치되지 않는다.

지금 남녘인민들은 이번 겨울철울림평경대회에서 공화국의 응원단이 시종일관 독도가 그려진 통일기를 마음껏 흔들것을 보면서 《독도가 빠져 아쉬운 통일기는 대신 북용원단이 흔들었다》, 《북용원단이 독도가 들어간 통일기를 고수했다》고 하면서 가슴후련해하고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독도는 조선민족의 땅이며 국토의 일부분인 독도가 그려진 통일기는 앞으로 계속 힘차게 퍼덕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준

## 일본당국의 오만무례한 망동을 규탄하는 항의투쟁

### 남조선에서 련일 고조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일본수상의 오만무례한 망동을 규탄하는 항의투쟁이 련일 고조되고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겨울철울림평경대회 개막식에 참가한다는 미명하에 남조선에 날아든 일본수상 아베는 성노예문제와 관련한 《합의》에 대해 《정권》이 바뀌어도 지켜야 한다고 력설하였는데 일본대사관앞의 성노예소녀상에 대해서는 철거해야 한다고 기

을 토하였다.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도 연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떠벌이며 동족대결과 조선반도정세악화를 추구하였다.

이 소식은 즉시에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인터넷에는 《어기가 없다》, 《무슨 량치로 간섭이나》 등 항의글들이 련일 올라왔다.

한 인터넷가입자가 올린 《견방지기 짝이 없는 일본은 스스로 파자사에 대한 반성과 숙죄부려 해야 한다.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좋은 구석이 단 하나도 없는 미개 국가이다.》라는 글에 삼시에 1만 6000여명의 가입자들이 지지를 표시하였다.

정당, 단체들이 성명, 담화, 문명을 련이어 발표하고 서울의 일본대사관앞을 비롯한 곳곳에서 기자회견, 집회, 시위 등이 광범히 전개되었다.

우리겨레 하나되기운동본부, 부산지하철도로조,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 전교조 부산지

부를 비롯한 부산지역의 16개 시민사회단체가 부산의 일 분영사관앞에서 일본당국을 규탄하는 항의행동을 전개하였다.

참가자들은 일본수상의 망언을 적은 종이장을 깃뚫아 쓰레기통에 처넣으며 분노를 터뜨렸다.

그들은 아베야말로 무례하기 짝이 없는자라고 하면서 과거 일본의 죄악사를 사죄하지 않은 주제에 참견질이나 하지 말라고 단죄하였다.

성노예소녀상과 강제징

용로동자상은 일제의 침략전쟁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수난을 알리는 상징물이다. 이를 건립하는것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는 민족의 념원이요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트럼프와 아베의 막말에 놀리워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일본당국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려나가자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 민족자주와 단합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2월의 강토에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기류가 뜨겁게 흐르고 있다. 북과 남이 손잡고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민족적대사로 의의있게 치르는 감동깊은 날을 통하여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노력하면 능히 땅의 평화를 지키고 통일위업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가슴 뭉클하게 절감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한목소리로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무대로 펼쳐지고 있는 조선민족의 화해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그것이 북남관계개선과 평화보장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 민족을 돌로 가른 것은 외세이고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도 외세이다. 민족분열이래 오늘에 이르는 기간 세월은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자주의 힘으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역사이다.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을 조국통일문제 해결의 근본으로 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투철한 민족자주적립장에서 주체적인 조국통일노선과 민족대단결사상을 제시하시고 철저히 구현하여오셨다.

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연석회의는 위대한 주석님의 투철한 민족자주정신과 민족대단결사상이 안아온 뜻깊은

민족적 대화 회이었다. 그때 주석님께서서는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에게 우리는 절대로 남의 장단에 놀지 말아야 하며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매워 살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 민족자주의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우리 민족이 통일의 큰 집을 짓자면 초석이 든든하여야 한다. 기초가 든든히 다져지지 못한 집은 사상무각에 지나지 않는다.

위대한 주석님께서서는 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주의 힘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근본립장과 방향을 천명한 조국통일의 근본초석을 마련하시었고 그 시행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통일문제는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인민 자신의 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 위대한 주석님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이다.

1970년대 초 북과 남사이의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남측대표들이 평양에 왔을 때

그들을 만나신 주석님께서서는 조국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하시

며 우리 민족끼리 접촉하여 대화를 할데 대하여서와 오해와 불신을 없애고 민족단합과 통일을 이룩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세월이 흐르며 분열의 골이 깊어지고 민족이 커갈수록 어느 하루, 어느 한시도 조국통일문제를 잊은적 없으신 주석님이시었다. 그이께서는 언제든 조국을 방문한 최덕신선생을 만나시었을 때에도 우리 민족의 분열이 비록 외세에 의해 강요된 것이지만 조선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우리 민족자주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민족적문제이라고, 우리는 민족자주적립장에서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의 힘으로 나라를 통일하고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갈 것이라고 하시었다.

국제레전도련맹 최홍희총재를 만나시었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민족의 영구분열의 위험을 막고 우리 민족자주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조선사람들끼리 조국통일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신 주석님이시었다.

외세의 민족분열간섭을 주축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주석님께서서는 1990년 8월 범민족대회에 참가한 대표들을 만나시었을 때에도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 조선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조국을 통일하자,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자고 절절히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주석님의 민족자주와 단합의 사상을 받들시어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겨레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민족자주와 단합의 기치를 높이 드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분불휴의 힘으로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는 북과 남의 수반들이 실현되고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채택되어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는 6.15시대 통일시대가 펼쳐질 수 있게 되었다.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통일에국의 길에 내세워주고 이끄신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6.15시대의 개척과 전진을 힘있게 추동한 원동력이요 활력소였다.

2007년 10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남조선당국자를 만나시어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을

세계앞에 보여주어야 하며 이번 상봉이 민족적자주성을 확립하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는 좋은 계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리고 북남사이의 경제협력도 단순한 경제거래가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통일,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숭고한 사업이므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풀어나가야 한다고 언명하시었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국통일성업은 안팎의 분열주의 세력의 반통일책동이 악랄한 속에서도 자주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게 되었다. 북남사이에 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실현되고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채택되어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는 6.15시대 통일시대가 펼쳐질 수 있게 되었다.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통일에국의 길에 내세워주고 이끄신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6.15시대의 개척과 전진을 힘있게 추동한 원동력이요 활력소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일유훈을 받들시어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주시려는 것은 영애에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그이께서는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기초하여 풀어나가야 한다고 언명하시었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국통일성업은 안팎의 분열주의 세력의 반통일책동이 악랄한 속에서도 자주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게 되었다. 북남사이에 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실현되고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채택되어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는 6.15시대 통일시대가 펼쳐질 수 있게 되었다.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통일에국의 길에 내세워주고 이끄신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6.15시대의 개척과 전진을 힘있게 추동한 원동력이요 활력소였다.

2007년 10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남조선당국자를 만나시어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을

단기 과전되어 올림픽경기대회가 민족의 대사로 더욱 성대하게 치러지게 되고 겨레의 단합열기, 통일열기를 한껏 북돋아주게 되었다. 세상사람들에게 조선민족의 슬기로운 모습과 기상을 과시하고 통일의지와 열망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2월의 강토에 차넘치는 민족화해와 단합의 환희로운 현실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김정은위원장이 오래동안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해빙의 물결을 뒀다.》고 보도하였다. 재민동진국련합회, 재가나다동진국련합회 등 해외동포단체들과 해외동포들은 《얼어붙은 북남관계가 크게 진전되고 6.15시대의 뜨거운 통일열풍이 다시 불어 칠 것이 기대된다.》, 《정세발전을 주도하시는 김정은위원장의 자신만만하고 강한 배심과 민족자주정신이 가져온 결과.》, 《민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는 북의 태도는 믿을 것은 우리 민족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깊은 감명을 터치었다.

매국배족세력의 반통일책동이 아무리 집요하고 악랄하여도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로 나아가는 겨레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 천출위원이 계시고 불멸의 통일대강물이 우리 겨레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어 자주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리 설

## 북남관계개선은 온 겨레의 막을수 없는 지향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북남사이에는 관계개선의 새로운 전기가 열리고 있다. 남조선에서 열린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공화국의 고위급대표단과 함께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레전도시범단 등이 파견된 것은 북남관계개선을 추동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통일열기를 더욱 드높이는 뜻깊은 계기로 되었다.

북과 남은 오늘의 흐름을 이어 민족적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나가기 한다.

북남관계는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이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두개 민족이 대치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강토안에서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져 있다. 북과 남사이에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는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적공통성이 훨씬 더 크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분열된 때로부터 70여년, 그동안 세계는 멀리 전진하고 시대는 크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고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이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의 고통을 겪고있는 것은 누구인가 다 통분할 일이다. 세계를 이어오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이제 더 이상 참을수도 허용할 수도 없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하루빨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온 겨레의 막을수 없는 지향이다.

이번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은 그것을 다시금 똑똑히 확인하였다.

북과 남은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에서 《아리랑》노래선율이 울리는 가운데 통일기를 앞세우고 공동입장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의지를 내외에 또다시 힘있게 과시하였다. 경기장에서 통일기를 휘날리며 공화국의 응원단과 남측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는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적공통성이 훨씬 더 크다. 《우리 민족끼리》, 《조국통일》의 힘찬 합성, 그것은 북과 남이 힘을 합쳐 통일에로 가자는 겨레의 피라는 가슴속채워 있었다. 민족정통무도의 독특하고 다양한 기술들을 펼쳐보이며

진행된 합동시범출연을 통하여 북남의 레전도인들과 남측의 관객들은 북과 남이 하루빨리 하나가 되기를 넘나하였을 때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며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대업에서 북과 남의 가수들이 함께 부른 《우리의 소원은 통일》, 《다시 만나시자》의 노래는 8천만 마음속으로 따라부른 통일 노래였다. 공연을 본 남측의 각계층은 《남북이 같이 서있는 데 눈물이 난다.》, 《가슴이 뭉클하고 오래동안 얼어붙었던 언 땅이 녹아서 봄이 온듯한 느낌》, 《이번 공연이 열거 후 조선에도 전파되어 열거와 신앙,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민족화해의 열풍, 통일에국의 열풍 결과에 의하면 남측 주민 10명 중 7명이 이번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북남관계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응답했다.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조성된 화해의 분위기를 북남관계개선으로 이어나가는 것은 북남당국의 공동된 의지도 강렬한 것으로 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온 겨레가 안

팍의 분열주의세력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며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대업에서 북과 남의 가수들이 함께 부른 《우리의 소원은 통일》, 《다시 만나시자》의 노래는 8천만 마음속으로 따라부른 통일 노래였다. 공연을 본 남측의 각계층은 《남북이 같이 서있는 데 눈물이 난다.》, 《가슴이 뭉클하고 오래동안 얼어붙었던 언 땅이 녹아서 봄이 온듯한 느낌》, 《이번 공연이 열거 후 조선에도 전파되어 열거와 신앙,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민족화해의 열풍, 통일에국의 열풍 결과에 의하면 남측 주민 10명 중 7명이 이번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북남관계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응답했다.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조성된 화해의 분위기를 북남관계개선으로 이어나가는 것은 북남당국의 공동된 의지도 강렬한 것으로 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온 겨레가 안

팍의 분열주의세력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며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대업에서 북과 남의 가수들이 함께 부른 《우리의 소원은 통일》, 《다시 만나시자》의 노래는 8천만 마음속으로 따라부른 통일 노래였다. 공연을 본 남측의 각계층은 《남북이 같이 서있는 데 눈물이 난다.》, 《가슴이 뭉클하고 오래동안 얼어붙었던 언 땅이 녹아서 봄이 온듯한 느낌》, 《이번 공연이 열거 후 조선에도 전파되어 열거와 신앙,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민족화해의 열풍, 통일에국의 열풍 결과에 의하면 남측 주민 10명 중 7명이 이번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북남관계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응답했다.

은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헤별 일이 없다.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사상과 리념, 제도와 지역, 정견과 신앙,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민족화해의 열풍, 통일에국의 열풍 결과에 의하면 남측 주민 10명 중 7명이 이번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북남관계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응답했다.

은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헤별 일이 없다.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사상과 리념, 제도와 지역, 정견과 신앙,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민족화해의 열풍, 통일에국의 열풍 결과에 의하면 남측 주민 10명 중 7명이 이번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북남관계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응답했다.

은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헤별 일이 없다.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사상과 리념, 제도와 지역, 정견과 신앙,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민족화해의 열풍, 통일에국의 열풍 결과에 의하면 남측 주민 10명 중 7명이 이번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북남관계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응답했다.

강 현 철

지난 1월 20일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는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여자빙상쇼케이 종목에 북과 남이 단일팀을 꾸어 출전한다는 소식을 정식 확정하였다. 이를 두고 미국의 《뉴욕타임스》, CNN, 영국의 BBC, 프랑스의 AFP 등 세계의 주요언론들이 《새해 시작된 북남관계의 해빙기, 조선반도 전쟁위기상황에서 보기 힘든 희망의 순간》, 《지난 십여년동안 북남간에 있었던 가장 극적인 화해의 몸짓》이라고 격찬하였으며 공화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 남조선의 대다수 사람들이 단일팀출전을 적극 지지찬동하였다.

여자빙상쇼케이 북남단일팀은 무어든 첫날부터 일부의 우려를 털어버리고 모두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우선 북과 남의 선수들이 마음과 뜻을 합치니 팀의 단합이 이루어지고 경기력이 제고되었다. 캐나다출신의 단일팀감독은 《처음 북조선들의 합

류소식을 듣고는 최악의 상황을 떠올렸는데 실제로는 너무 좋았다. 기대한 것 이상으로 팀 분위기가 좋다. 이제 우리 선수들은 단일팀이 하나의 가족이 되고 모두 받아들이고 있다.》고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북과 남의 선수들이 서로를 친차 매처럼 여기고 생일도 함께 축하해주면서 팀의 단합을 이루었다.

북남단일팀은 경기를 통해 한피해를 이룬 민족이 하나로 굳게 뭉친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북남단일팀이 출전하는 모든 경기는 첫 경기부터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한겨울의 추위속에서도 경기시작 여러 시간전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줄이 장사진을 이루었다. 경기가 진행되는 기간 공화국의 응원단과 남측관중이 하나가 되어 《우리는 하나이다.》, 《우리 선수 힘내라.》고 경기장이 떠나갈 듯이 응원을 펼치었다.

일본팀과의 경기에서 북남단일팀이 첫 골을 넣었을 때는 공화국의 응원단과 남측관중이 일제히 일어나 서로 얼싸안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었다. 하기에 남조선의 《국민일보》는 《남북화합을 리유로 선수에게 강요했던 회생이 한때론 단으로 불거졌고 분단의 세월만큼 달라진 서로를 단단하게 묶을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갑작스러운 팀변경으로 사기가 떨어질 줄 알았지만 기우였다. 분단의 세월만큼 서로에 대한 편견과 불신의 벽도 얼마든지 녹이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시대를 펼칠수 있다는 것을.》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북과 남의 강렬한 열망과 공동된 의지가 안아온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갈 것이다. 김 장 호

다.》, 《가장 웅장한 스포츠무대에서 스포츠가 부차적인 요소가 되는 일은 드물고 기복정신이나 메달획득등이 역사가 쓰이는 일도 거의 없지만 평창올림픽 첫날 열린 경기에서 첫 두 점수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가 이겼다.》고 전하였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한 위원은 북남단일팀이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치었다.

북남단일팀을 두고 펼쳐진 현실은 말해주고 있다. 북남이 만나고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분열의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서로에 대한 편견과 불신의 벽도 얼마든지 녹이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시대를 펼칠수 있다는 것을.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북과 남의 강렬한 열망과 공동된 의지가 안아온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갈 것이다. 김 장 호



# 류달리 따스한 겨울

겨울은 추위의 대명사이다. 찬서리, 칼바람에 강산이 얼어붙고 추위가 사람들을 움송그리게 만드는 계절.

겨울이 춥다고 하지만 이해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다. 조선반도의 중부지방에서는 한때의 기온이 영하 20℃에 달했다. 2월에 들어와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열린 남조선의 평창에서도 흑한이 선수들과 관중들의 몸을 얼

구었다.

동장군이 사납게 기승을 부렸지만 우리 겨레에게는 류달리 따스하게 느껴진 겨울이었다. 비록 추위는 몸을 얼구어도 사람들의 마음은 푸근했고 따스했다.

## 대결의 추위를 녹이는 따스한 봄별

《창밖은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민족적대사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잘 치루어나가려는 애국애족의 마음, 동포애의 마음으로 가득찬 우리의 가슴은 후덥기만 하다.》

남조선에서 열린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고있는 북측 응원단장이 한 말이다.

비단 그만의 심정이 아니다. 겨레 누구나 느끼는 감정일 것이다.

북과 남이 함께 한 태권도합동 시범출연장에서 서울시장도 축하사를 통해 《날씨는 좋지 않지만 절대로 춥지 않다. 뜨거운 가슴이 있기 때문이다.》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열풍이 휘몰아치고있는 평창에 시선

을 모으며 후더워오르는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있다.

그 뜨거운 열기는 자연의 맹혹한 추위를 녹이는 자도 남음이 있다.

지난 2월 8일 강릉에서 진행된 공화국 예술단의 첫 공연을 본 남조선의 일반관람객들은 당국이 실시한 관람객응모에 참가하여 139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표를 얻은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들은 당일 맹찬 추위가 계속되었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공연이 시작되기 6시간전부터 구장에 도착하여 줄을 서서 입장시간을 기다렸다. 이에 대해 남녘의 언론들은 《북공연이 열린 공연장박의 분위기를 한파를 누그러뜨릴 정도로 후끈 달아올랐다. 국민적관심이 매우 뜨거웠다.》고 전했다.

불과 수십일전까지만 해도 조선반도의 것처럼 긴장했던 정세가 이렇게 뒤바뀔줄을 누구도 예상 못하였다. 전쟁위험이 질세감으로 이 땅에 화해와 완화의 봄씨앗이 뿌러지고 반목과 불화로 어둠된 겨레의 마음들에 햇빛이 비쳐들기 시작하였다.

이해의 추운 겨울에 사람들의 마음을 류달리 따스하게 해줄것은 조선반도에 화해의 바람이 다시 찾아온데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벌써 피그나 세월이 흘렀다. 화해와 통일의 6.15시대가 불신과 대결의 어두운 파거로 되돌아간 그때로부터.

두차례의 수뇌상봉과 다방면적인 협력, 교류로 힘들게 쌓아올렸던 북남관계의 성과물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겨레는 실망과 분노에 차서 지난 10년을 얼마나 힘들게 헤쳐왔던가.

그런데 그 실망이 환희와 락관으로 바뀌어졌다. 2018년이 밝아와 두달도 채 안되었지만 민족의 화해와 북남관계개선은 남조선에서도 막을수 없는 지향으로, 대세의 흐름으로 되었다.

그러니 겨레의 마음이 어찌 혼

혼해지지 않을수 있는가. 추운 겨울이 따스하게만 느껴지지 않을수 있었는가.

새해의 첫 아침 뜨거운 동포애의 정, 진정어린 북남관계개선의 지를 담아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를 표명하시고 의의깊은 올해에 북과 남에서 모든 일이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가 화해의 새 봄빛을 안아왔다.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그이의 애국애족의 결단과 의지로 북남고위급회담이 열리고 공화국의 고위급대표단과 예술단,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이 련속 남

조선에 파견되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서가 남조선대통령에게 전달된것을 계기로 화해의 분위기는 절정에 치달아오르게 되었다.

지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북과 남의 강렬한 열망과 공동된 의지가 안아온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쌓아나가자는것이 민족의 한결같은 의사이다. 《북과 남이 힘을 합쳐 평화와 번영을 이룩해나가자.》, 《평화가 봄처럼 찾아오기를 바라다.》... 이런 목소리들이 공화국에서도 울리고 남에서, 해외에서도 계속 울리고있다.

고통이다. 이번에 공화국의 고위급대표단을 비롯한 대규모사절단이 위인의 따뜻한 친서와 축하의 마음을 안고 남녘을 찾았다. 만나보니 북남은 《우리》라는 하나였다. 피는 물보다 짙은 민족이 화해와 신뢰, 단합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은 이처럼 마음속 랭기와 어둠을 가지고 따스함과 밝음을 가슴가득 채워가는 과정이다.

화해가 따스함이라면 그 종착점인 통일은 뜨거운 열이다. 두손이 맞잡아지면 따스한 온기가 흐른다. 한사람이 열사람이 되고 열사람이 백, 천으로 늘어나 뭉치면 더 큰 열을 발산한다.

민족을 위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이룰수 없는것이 통일이요 또 이루어지면 더 뜨거워지는 것이 통일이다. 그 하나로 된 힘이 발산하는 엄청난 빛과 열, 에너지를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무궁도록 추동해줄것이다.

진정 따스함에 살자면 민족이 화해하고 관계개선과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 《따스한 이 겨울》이 관계개선의 《풍성한 가을》로 이어지기를

어느덧 봄이 태동하고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껏 부푸는 기대와 희망을 다가오는 봄에 실어본다. 아직 강하천과 실개울의 얼음은 다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얼음장미에서는 봄물이 흐르고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은 자연의 어길수 없는 법칙이듯 민족이 불신과 대결을 청산하고 화해와 관계개선, 통일로 나아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민족사의 도도한 흐름이다.

우리 민족은 화해에 살고 통일에 살아야 한다. 이것이 민

족의 밝은 삶이고 운명이며 미래이다.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살린 화해의 불씨를 북남관계의 따뜻한 봄과 여름, 풍성한 가을로 이어가려는 겨레의 열망은 뜨겁고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누구도 이미 발걸음을 뻗은 조선민족의 이 힘찬 통일진군을 가로막을수 없다. 그속에서 2018년은 북남관계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 《조선민족의 해》가 되리라.

본사기자 김 련 육

## 화해는 따스함이다

가화만사성이라고 가정이 화목해야 만가지 일이 잘된다.

민족이라는 하나의 큰 가정에서도 화목을 도모하여야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련사적 신년사에서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

변적인 해로 빛내이자고 하신것이 아닌가.

분렬의 고통속에 사는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불신과 대결이 차디찬 겨울이라면 화해는 따스한 봄이다.

한파를 이은 겨레이면서도 불신하는것은 민족의 가슴아픈 불행이고 그자체가 겨레에게는

인간의 생활은 노래와 함께 흘러간다. 마 나될 일념을 더욱 불태워주는 통일주체의 주변에서도 통일주체의 노래들이 높이 울리

관가지로 민족이 가는 통일의 길에서도 노 가요들.

래가 높이 울리고있다. 갈라져 살수 없는 지금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가슴몽글한 장 본사전편부는 이번호부터 민족의 극적인

민족의 아픈 마음과 통일소망을 전하고 하 면들이 펼쳐지는 겨울철올림픽경기장과 그 화해흐름을 노래와 함께 엮어본다.

## 화해와 단합을 추동하는 노래 《반갑습니다》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서 모처럼 화해의 소중한 불씨를 살리는데 기여한것은 강릉과 서울에서 두차례 진행된 삼지연관현악단의 축하공연이었다.

이 공연의 첫 순서로 울려 퍼진 노래는 북과 남의 우리 겨레에게 잘 알려진 노래 《반갑습니다》이다.

공연의 첫 순서로 울려 퍼진 노래는 북과 남의 우리 겨레에게 잘 알려진 노래 《반갑습니다》이다.

평양과 서울, 금강산과 제주도, 부산과 대구 등 삼천리방방곡곡에서 《반갑습니다》의 경쾌한 선율이 높이 울리면 사람들은 누구나 따라부르며 환희를 이은 하나의 민족이 다시 만난 상봉의 기쁨과 통일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들먹이였다.

북남관계의 오랜 곡절과 위기끝에 이 노래가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녘땅에 다시 울려진것은 의미심장한것이다.

삼지연관현악단의 첫 공연을 두고 남조선언론들은 하나같이 《삼지연관현악단의 공연은 남쪽의 노래방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반갑습니다》

로 시작되었다. ...오래동안 얼어붙었던 언 땅이 녹아서 봄이 온듯 한 느낌이었다.》고 대서특필하였다.

어찌 그렇지 않았는가. 가요 《반갑습니다》는 노래이기 전에 오래동안 분렬의 고통을 겪으며 헤어져 살아온 겨레가 다시 만나 느끼는 벅찬 감정의 분출이다. 남녘땅에서 열리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축하의 사절단으로 찾아가는 공화국의 예술단, 선수단, 응원단 성원들이 만나본 남녘겨레는 반가운 내 겨레, 한혈육이었다.

마찬가지로 민족애와 통일념원을 안고 찾아온 북녘동포들이 남녘겨레에게도 반가운 혈육들이였다. 그래서 남녘의 각계층 인민들은 북의 사절단들을 뜨겁게 맞이해주었다. 남측당국도 편견의 활동을 잘 보장하기 위하여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그속에서 《반갑습니다》 노래는 계속, 더 크게 울리고있다.

북남단일림이 출전한 여자빙상 호케이경기장에서도, 북과 남의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기장들마다에서, 북측응원단이 야외공연을 펼친 장소마다에서 《반갑습니다》의 노래와 선율은 남녘겨레의 가슴을 통일의 회일로 불타오르게 하고있다.

이 노래의 경쾌한 선율과 더불어 북남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고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겨레하나》를 비롯한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과 청년학생들은 곳곳에서 노래 《반갑습니다》를 열창하면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평창에서 공화국의 선수단, 응원단과 남녘겨레는 만나면 저마다 반갑다고 웨치고있다. 그 따뜻한 목소리들에는 소중한 화해의 이 불씨를 북남관계개선과 통일로 이어가려는 간절한 지향과 열망이 묻어있다.

이번에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북과 남이 화해의 손길을 굳게 잡고 높이 부른 《반갑습니다》의 노래는 앞으로 삼천리방방곡곡에서 계속 힘있게 울려 퍼질것이다.

본사기자 김 철 민

## 《남북은 하나, 〈우리〉였다》

남조선언론들이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파견된 공화국의 응원단의 활동을 크게 소개하고있다.

언론들은 《북의 응원단이 련일 파견된 응원단과 공연활동으로 인기를 끌고있다.》, 《북 응원단의 세련된 모습에 관중들이 적극 호응하며 응원열기는 더욱 고조되고있다.》, 《북의 응원단이 《우리는 하나다.》, 《힘을 내라.》, 《장하다.》, 《용기를 내라.》, 《우리 선수 잘한다.》를 웨치며 한마음으로 응원함으로써 모든 관중들의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단일림이 첫 득점장면을 펼쳤을 때에는 감

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다.》고 전했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반갑습니다〉 응원노래가 들려왔다. 박수가 터졌다. 여기저기서 《반갑습니다》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눴다. 그렇게 서로 〈우리〉가 돼가고있었다.》, 《〈우리는 하나다!〉 응원단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경기장이 떠나갈듯 한 환호성이 터졌다. 남북은 하나, 〈우리〉였다.》고 전했다.

또한 언론들은 《북취주악단의 공연이 커다란 인기를 끌고있다.》고 소개하면서 《북취주악단이 강원도의 강릉에서 야외공

연을 펼쳤다.》, 《붉은 옷과 모자, 하얀 장갑과 장화를 차려입은 80여명의 북취주악단의 축하공연은 다른데서는 볼수 없는 진귀한 장면이다.》, 《악기를 들었었다는 하느 등의 가벼운 물동과 음악에 맞추어 대렬을 재구성하는 놀라운 모습들도 보여줬다.》고 전했다.

남조선의 각계층 주민들은 《음악이 경쾌하고 씩씩하며 단원들의 얼굴도 예쁘다.》, 《짜임새가 있고 현대적이다.》, 《마음이 몽클했다.》고 하면서 《북취주악단의 공연을 본것은 행운이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 북남대화를 하는데도 전쟁준비를 다그치는 미국

남조선의 《연합뉴스》, 《중앙일보》, 《세계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이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화해와 대화의 분위기가 고조되고있는 속에서 전쟁준비를 다그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보도들에 의하면 지난 20일 미 육군은 올월부터 3년간에 미본토에 주둔한 부대들에 사전동보없이 병력과 장비를 해외의 전쟁지역으로 신속히 이동하는 긴급 전개준비태세훈련을 집중적으로 벌리기로 하고 관련예산안을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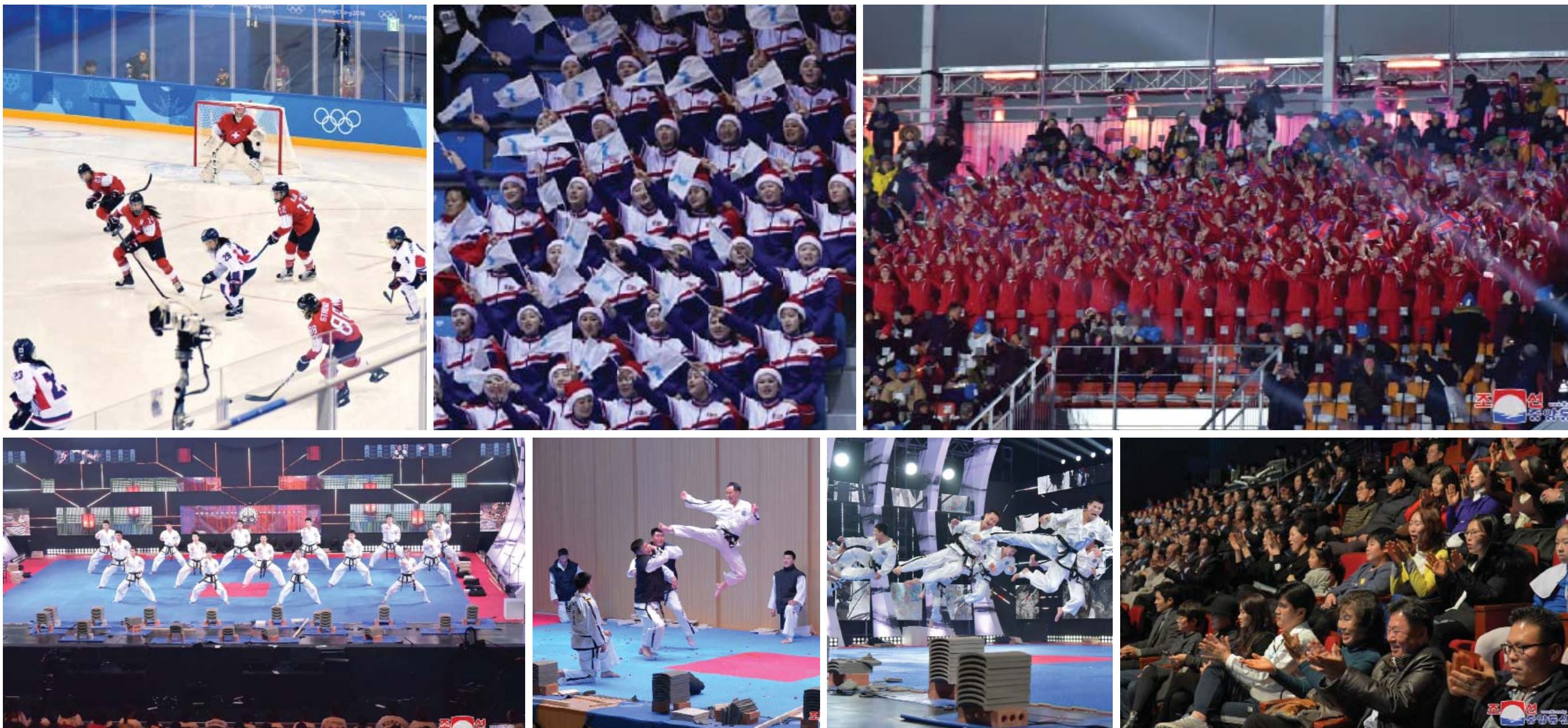
회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최근 미군이 남조선에서 대량살상무기체계훈련을 비밀리에 진행한데 이어 조선반도유사시 신속기동중원부대로 제일 먼저 투입되는 미제2500병사단은 해외파병을 앞둔 전투준비태세점검과 산악전투훈련 등을 벌였으며 제355전투기련대도 최근 《A-10》공격기 2개 대대를 동원하여 24시간내에 해외긴급배치하는 고강도훈련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특히 제82항공특전사단을 오기나와에 진전배치하여 주일미군 제3해병원정군과 진일작전훈련을 실시하였는가 하면 오는 5월과 6월에는 중동에서 맹활약을 하던 특수작전병력을 남조선에 증강배치하려 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제반 사실들은 미국이 우리 민족의 머리위에 기어이 핵전쟁의 불기름을 들쭉우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 재 중 조 선 인 총 련 합 회 경 축 행 사 진 행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76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연합회가 경축행사를 진행하였다.

최은복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의장을 비롯한 총연합회 일군들과 산하조직 대표들, 재중조선경제인연합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 성원들, 심양시에 사는 조선공민들 그리고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영사와 총영사관 일군들, 중국에서 사업하고있는 우리나라 지사 성원들이 행사에 참가하였다.

각계층 동포들과 료녕성, 심양시의 인사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8일 광명성절경축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중앙보고대회가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이 대회장면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호가 모셔져있었으며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대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최은복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공화국의 각지 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사투지는 그리움을 안고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명절기간 수많은 가정들과 극장들에서는 절세위인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 위인칭송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아 그리워》도 그러한 노래 중의 하나이다.

보고자는 절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도심을 안고 재중조선인총연합회와 전체 재중동포들은 조선로동당의 영리한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리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 영생기원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때로부터 달리는 야전렬차에서 손직하시던 마지막순간까지 오로지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자신의 한생을 장그리 불태우시며 력사와 인민앞에 불멸의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신 데 대하여 높이 칭송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조국의 크고작은 명절들에 해외동포들을 꼭꼭 불러주시어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주석단에도 내세워주시었으며 자그마한 애국적소행도 귀중히 여기시어 높은 금의 국가수훈도 베풀어주시면서 해외동포들의 삶을 빛내주시었다고 그는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인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를 벌릴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었다고 하면서 그는 재중조선인총연합회와 전체 재중조선동포들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와 새해신년사에서 제시하여 주신 진두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내 조국의 부강번영과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애국운동에 특색있게 기여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올리는 편지가 전체 참가자들의 열렬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대회는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이어 참가자들은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불면 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가슴뜨거운 화폭을 수록한 우리 나라 영화를 감상하였다.

대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광명성절경축 사진 및 도서 전시회장에 정중히 모셔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활동사진문헌들과 여러 사진, 도서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9일 광명성절경축 예술공연이 진행되었다.

이날 광명성절경축 연회가 있었다.

본사기자



## 그리움의 노래를 부르며

아침마다 노을피는 저 하늘가 바라보면 노을속에 웃으시는 장군님 그 모습 북편의 먼길을 찾으시며 인민을 안고 사시네 아 그리워라 김정일장군님

오늘도 온 나라 인민이 끝없는 경모심에 잠겨 부르는 노래 《아 그리워》

이 노래에는 절세위인에 대한 인민들의 절절한 그리움, 그리울 끝까지 따르려는 불같은 마음이 담겨져있다. 노래를 들으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해 눈비에 젖은 야전복자락 마를새 없이, 순간도 신들매를 뒤설 사이일

을 위하여 더 많은것을 해놓아야 하겠는데 시간이 한초한초 흐르는것이 안타깝다고 하시던 장군님이시었다.

어느해 2월에 있는 일이다.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자기께서는 인민생활문제를 풀기 위하여 지난해말부터 몇달동안 집에도 가지 못하고 려차에서 생활하시던 강행군으로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고있다고, 이제는 려차에서 생활하면서 강행군을 하는것이 수반된것 같다고, 명절날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즐기며 휴식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았지만

엄하시었다는것도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정하였던 점심시간을 줄이신 사연, 명절날도 려차에서 보내시고 분초를 아끼시며 일정에 없었던 대상들까지 돌아보신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에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 헌신적부무정신이 어려웠다.

정령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인민위원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강그리 다 바치신 참다운 인민의 자애로운 령도자이시었다.

사랑이 뜨거우면 그리움도 강렬한 법이다. 인민들은 장군님 그리움

때마다 이 노래 부르며 그이와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 고난도, 시련도 이겨냈다.

공화국에서는 나라 남녘로소가 부르는 노래 《아 그리워》는 영리한 그리움의 노래, 일심단결의 노래로 되었다.

이 노래만이 아니다. 《장군님이 그리워》, 《그리움은 끝이 없네》... 정령 노래도 끝이 없고 그리움도 끝이 없다.

령도자는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은 령도자를 순결한 충성안고 받드는 공화국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감동깊은 그리움의 세계이다.

이 노래 부르며 공화국의 인민들은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아버지장군님의 부강조국건설원을 꽃피우기 위한 창조와 건설에서 애국의 구슬땀들을 바쳐가고있다.

인민이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부르는 노래와 함께 위대한 장군님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 겨레와 함께 계신다.

서충혁

언제나 우리 겨레의 마음은 민족의 성산 백두산으로 달리고있다.

백두산, 바로 이곳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항일대전의 불길은 지퍼올리셨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시었다. 하기에 봄날에도 겨울에도 백두산으로 오르는 사람들의 물결은 끝이 없다. 그 많은 사람들이 운에는 평양시 락랑구역 승리1동에서 사는 김호일로인도 있다.

그는 일흔살이 퍼 지난 나이에 자전거를 타고 백두산으로 답사하여 못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5년 6월, 그가 자전거를 타고 평양에서부터 백두산으로 갈 결심을 맺었을 때 가족들과 친지들은 너분한 몸인 그에게 차를 타고 가라고 설득했지만.

그러나 김호일은 그들 앞에 자기의 마음속사연을 이렇게 터놓았다.

## 백두산으로 달리는 마음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심어주시며 백두산에 오르고 또 오르는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우러르며 격동된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발자취가 뜨겁게 어려있는 백두산으로 가는 로정을 따라 들쭉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장편기행문을 쓸 결심이다...

일찍부터 문학을 남다른 소질이 있어 한창나이에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할 때에도, 이후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그와 수필들을 창작하여 출판물들에 실은 김호일로인이다.

기어이 자전거를 타고 백두산으로 향하겠다는 김호일은 굳은 결심에서 사람들은 기상수문국 부국장으로

일해은 어제날의 일군으로서 후대들에게 무엇보다 귀중하고 값있는 정신적유산은 남기려는 그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김호일로인은 2015년 7월 자전거를 타고 평양을 출발하였다. 74살 나이에 자전거를 타고 수천리의 답사행군을 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장마와 무더위가 겹쳐져 그냥 앉지만 있어도 온몸이 땀으로 젖고 때없이 내리는 비에 옷이 마를새 없는 삼복철에 로인은 하루에 100여리의 행군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백두산답사행군을 결코 혼자서 한것이 아니었다. 로인의 답사행군에 감동을 금치 못하며 이듬해 얼굴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진심을 바쳐 그를 도와주었다. 백두산으로 간다는 그 한

마디에 모두들 혈육처럼 도와와냈던것이다. 그들 모두가 초면이었고 헤어지면 다시 못 볼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백두산이란 말에 한순간에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사람들로 되었다.

바로 여기에 백두산을 언제나 마음의 고향으로 안고 사는 이 나라 인민의 숭엄한 정신세계가 깃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김호일로인은 2017년 여름 또다시 자전거를 타고 백두산으로의 답사행군을 진행하였다.

언제나 그 어느때나 백두산으로 달리는 그의 마음은 로희를 모른다.

그 하나만이 아니라 이 땅의 천만군민의 마음은 언제나 백두산으로 향하고있다. 백두의 행군길을 영원히 이어가려는 총정의 마음, 신념의 맹세는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와 더불어 조국방어 어디서나 메아리치고있다.

본사기자 김춘경

## 인민들에게 존엄높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는 제도

오늘 공화국인민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서의 존엄을 떨치며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다.

사람은 누구나 값있고 존엄높은 삶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온갖 지배와 예측에서 벗어나 존엄있고 행복한 삶을 누리려는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은 어느 사회에서나 다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의 참된 삶과 행복이 꽃피고있다.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에게 평등하고 건전한 물질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며 최상의 문명생활을 최고의 수준에서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시책들을 끊임없이 베풀고있다.

인민들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고있을뿐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세제제도도 철폐되어 세 세대들은 세금이라는 말조차 모르고있다. 말초차 모르고있다. 최근년간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풍라인민유원지를 비롯한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와 평범한 근로자들과 교원, 연구사들을 위한 창천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은화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가 훌륭히 일떠선것도 공화국의 인민적시책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공화국에서는 돌봄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부모없는 어린이들의 생활도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주고있다. 녀로자보호부문에 대한 투자가 계통적으로 늘어나 로인들의 생활조건과 환경이 날로 좋아지고있으며 국가의 각별한 관심속에 부모없는 어린이들은 고아의 슬픔을 모르고 행복하게 자라고있다. 전국도처에 새로 현대적으로 일떠선 육아원, 예원들에서의 원아들의 행복넘친 생활모습들을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집단주의는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이며 서로 믿고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살아가

는 여기에 인간세계의 아름다움이 있다. 공화국에서는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이 사람들의 정신도덕생활을 확고히 지배하고있다.

공화국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개인의 안락과 행복보다 조국의 번영과 민족의 장래를 먼저 생각하고 자에게 차려지는 명예나 보수보다 집단의 리익을 앞세우며 성실하게 일하고있다.

하기에 공화국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피와 살, 지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고 남려청년들이 영애군인들과 일생을 같이하며 부모없는 아이들과 돌봄 사 람이 없는 늙은이를 친절히 돌보아주며 미용사들은 미용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이것은 극단한 개인주의와 황금만능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참으로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들에게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마련해주는 진정한 인민의 제도이며 오랜 세월 리상으로만 비추어오던 인민의 꿈과 돌봐주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한유성

복조선에 대해 잘 모르는 해외동포들이나 외국인들은 흔히 복조선을 가리켜 《수수끼끼와 같은 나라》라고 말하지만 최고령도자, 당, 군인이 똘똘 뭉친 세계 제1의 일심단결된 나라라는 의견에는 다 동의한다.

복을 방문한 대부분의 해외동포들이나 외국인들은 《세상에 복조선같은 나라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세상에 이런 사회가 있을까?》라는것이 해외동포들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방문자들의 일치한 반응들이다. 이에 대해 각계 각종 북녘동포들은 위대한 령수때문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북녘동포들은 어린이에서 로인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 이들은 북미대결전에 대하여도 조종도 전쟁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른바 《염전사상》이 전혀 없기때문에 조선반도가 엄중한 시기에 접어들어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종도 불안한 기색이 없이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에 불타있다. 이것이 북녘동포들의 자애이며 표정이다.

북녘동포들은 누구를 만나도 일심단결을 가장 자랑으로 내세운다. 핵무기보다 더 강하다고 말하는 북조선의

일심단결의 위력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것은 방문자모두의 관심사이며 대화의 초점이기도 하다. 일심단결은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이미 일심단결의 기초를 마련해준 김일성주석의 시작으로 김정일국방위원장 그리고 김정은최고령도자에

## 일심단결의 위력은 그 어떤 무기로도 파괴할수 없다

이르기까지 최고지도자들의 령도력에 의해 창조되고 다져온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북 조선의 최고지도자들이 체현해온 이 민위천사상과 인민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은 곧 북녘동포들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지극한 흠모와 함께 절대적 충성심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결핵된것이 바로 북조선의 일심단결의 핵심이 된다 고 복을 잘 아는 사람들은 말한다.

지금 북녘사회는 그 어느때보다 북미대결전을 맞이한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두리에 똘똘 뭉쳐있다. 이러한 일심단결된 북부조국의 위력은 그 어떤 무기로도 파괴할수 없는것으로 평가 받고있다. 이것이 북조선의 미래를 밝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로서 각계각층 북녘동포

들은 긴장한 정세 가운데서도 조종도 흔들림없이 신심과 신념에 찬 자세로 자기 분야의 직장일에 매진하고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총퇴근하는 북녘동포들의 표정들은 활기에 차있고 이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때보다 단결한 모습이다. 이것이

이곳 북녘사회는 그 어느때보다 북미대결전을 맞이한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두리에 똘똘 뭉쳐있다. 이러한 일심단결된 북부조국의 위력은 그 어떤 무기로도 파괴할수 없는것으로 평가 받고있다. 이것이 북조선의 미래를 밝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로서 각계각층 북녘동포

한 관점에서 더욱더 그렇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기자의 손목을 잡아주시던 그 모습은 마치 1990년 8.15 제1차 범민족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해외동포들과 함께 오찬을 나누시던 당시의 김일성주석의 모습과도 흡사했고 지난 기간 소년단행사, 로병행사, 녀성행사, 각종 공장 및 기업소들, 인민근로자들에 대한 현지지도 등에서 보여주신 모습들은 한마디로 김일성주석,

김정일국방위원장과 특같은 모습이었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가시는 곳마다도 평양분위기를 취재한바 있었다. 그 당시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손목을 잡을수 있었던 그 순간에 있었던 감정과 소감 그리고 그 후에 그분과 북녘동포들의 관계를 취재하면서 《세상에 북조선같은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자문하고 자답한 바 있었다.

《이런 사회, 이런 나라는 지구촌에서 오로지 북조선밖에 없다. 그뿐만아니라 인민력사상 이런 일심단결사회를 이룬 나라는 전후후부다.》는것이 북을 제대로 파악하고있는 사람들의 일관된 관점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기자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다. 특히 북의 령수에 대

《인족통신》대표 로길남

《인족통신》대표 로길남

《인족통신》대표 로길남

# 북남관계개선편위기를 깨보려는 흥심의 발로

공화국의 핵을 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떠들어대던 트럼프대통령이 최근에 《북조선의 핵보유는 적화통일을 위한것》이라는 얼빠진 꾀변을 늘어놓고있다.

미국가정보국장 코프, 미중앙정보국장 폼페오를 비롯한 정보기관의 우두머리들이 국회청문회를 비롯한 공개석상에서 《북조선의 궁극적목표는 핵무기를 앞세워 적화통일을 이루는것》이라고 횡설수설하였는가 하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맥마스터도 《북조선의 핵무기는 붉은 기발아래 통일하기 위한 협박용》이라고 제쳐냈다.

오스트랄리아주재 미국대사로 내정된 태평양지역 미군총사령관 헤리스도 미국외화인 군사위원회에서 《북조선은 《한》반도를 공산체제로 재통일하는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북조선과 대화를 하더라도 반드시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제거하는데 조짐

을 맞추어야 한다.》고 력설해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공화국의 핵보유가 미국의 핵위협과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의해 초래된것이라는 어른이 높아가고 특히 울헤에 들어와 북남사이의 극적인 화해국면이 조성되는데 다음해난자들이 부러대는 단말마적광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천명된바와 같이 공화국의 국가핵무력은 철두철미 미국의 핵위협을 끝장내고 미국의 군사적침공을 막기 위한 전쟁억제력이며 최종목표는 미국과 합의 균형을 이루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의 안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것이이지 결코 한 괴물을 어느 동족을 해치기 위한것이 아니다.

공화국이 코앞에 있는 손바닥만 한 남조선이나 어찌 보자고 앉았는 대가를 치르며 핵무력을 건설하고 대륙간탄도로켓까지 보유하였

다고 하면 과연 누가 그것을 믿겠는가.

미국의 흉악한 속심은 공화국의 핵을 《적화통일용》으로 매도하여 《동맹국보호》라는 구실밑에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 대한 침략무력증강을 합리화하며 남조선 내부에 반공화국적대감을 고취하여 북남관계개선편위기를 깨버리자는데 있다.

트럼프대통령이 정말 다급하니 다급해한 모양이다. 날이 갈수록 저들의 《북조선핵위협》소동의 모략적정체와 허황성이 날날이 드러나는 속에 이제는 남조선수페당이 우러머던 케케묵은 《적화통일》간판까지 끄집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니 말이다.

미국이 공화국의 핵을 《적화통일용》으로 매도하고있지만 오히려 남조선에서는 조선반도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민족공동의 전략자산이라고 자부하는 북소리들이 갈수록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최근 일본에서 본토에 대한 그 누구의 《위협》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지난 14일 일본방위성 아베와 방위상 오노데라는 중의원 공개석상에 나타나 북조선에 일본전역을 사정권에 둔 수백여기의 《로동》미사일이 배치되어있다. 북조선미사일 등에 핵탄두 탑재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신중히 분석하고있다. 《전수방위》원칙하에 일본본토박에서 《북조선위협》을 제거할수 있는 장거리미사일도입이 필요하다고 괴대를 돌구었다.

한편 일본방위성은 《니혼게이지》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을 내세워 일본전지역에 있는 1600여개의 교육위원회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80%이상의 각 학교교들이 북관도미사일공격을 가장한 대외훈련을 본격적으로 벌일것을 요구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여론을 의도적으로 내뿜었다. 여기에 맞추어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국의 학교들에서 《위기관리대응 지침서》를 작성할 때 표준으로 삼아야 할 안내문에 북조선의 탄도미사일발사에 대비하기 위한 대외방비와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연계방안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오는 3월부터 문부과학성이 내려보내는 지침서에 따라 일본의 모든 학교들에서 북조선미사일공격을 가상한 대외훈련계획을 세우고 실시할것이라고 떠들고있다.

1940년대 중엽 패망을 앞두고 도조를 비롯한 일본의

최신형무인공격기들은 공화국에 대한 감시 및 정찰뿐 아니라 유사시 주요대상물과 지휘부에 대한 정밀공격을 노리고있다.

이런 속에 미국이 지난 6개월간 공화국에 대한 대규모적인 사이버공격을 가

한 준비를 은밀히 구축해온 자료들도 폭로되어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그에 의하면 미국정보기관들이 이미 수십억US\$를 들여 남조선과 일본 등 해당지역에 원격, 감청기지를 세우고 이것들을 빔섬유케블로 연결하는 기술적하부구조를 구축하였으며 필요한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탐지부대를 설립하는 등 공화국에 대한 사이버공격준비에 열을 올리고있다고 한다.

은 물론 조선반도와 지역적세의 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찬동을 받고있다.

그런데 일본은 이에 원세끼를 꼬여서 조선반도의 평화분위기에 제만 뿌리고있다. 그도 그럴것이 조선반도에 조성된 화해와 평화기류는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향해 군

주주의마차를 미친듯이 몰아가는 아베페당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가 아닐수 없기때문이다. 이에 당황한 섬나라속속들은 공화국을 걸고 안보불안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본 전지역을 사정권에 둔 미사일이 배치, 《암살부대》와 같은 허황하고 황당하기 지없는 모략나발까지 불어대며 일본사회에 반공화국적대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날뛰고있다.

지어 신성한 교정에까지

지금 조선반도에서는 공화국의 주도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화해의 바람이 불고있다. 이러한 때에 반공화국군사적도발소동을 계속 벌이고 있는것은 조선민족의 화해와 대화분위기를 깨버리는 불순한 기도의 산물이다. 그러나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조선반도에 화해와 관계개선의 새봄을 안아오려는 우리 겨레의 념원과 의지는 갈수록 더욱 불타오르게 될것이다.

공화국을 군사적힘으로 어찌보려는 미국의 기도도 헛된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공화국은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전쟁방식에도 기꺼이 대응해줄 만단의 준비가 되어있다. 미국은 상대를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서 희



# 평화적 환경은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필수적 요구

최근 남조선에서 겨울철을 립피경기대회이후 미국남조선 합동군사연습개문제기론쟁거리로 되고있다.

민중개혁적당들은 원 북남관계개선편위기에 맞게 합동군사연습의 축소, 연기를 강력히 주장하고있고 진보언론들도 《북은 합동군사연습을 북침전쟁연습으로 간주한다.》, 《1990년대초 《립스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한것도 이를 감안한 조치》, 《연습보류를 결정하여 대화의견을 조정해야 한다.》고 하고있다.

반면에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들은 《우리만 계속 양보할수 없다.》, 《합동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하고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 역시 《《한》미의 최우선목표는 북핵폐기이다.》, 《우리만 계속 양보하면 북핵은 점점 기정사실로 굳어진다.》고 떠들며 악을 써대고있다.

북남사이의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것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서로 마주앉아 관계개선편위기에 진지하게 논의할수 없고 또 북남관계가 전진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북남관계개선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다. 침략적인 의제와 야합하여 버리는 북침전쟁연습은 동족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집중적산물로서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주되는 화근이다.

돌이켜보건대 외세와의 광란적인 침략전쟁연습소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가 전진적전까지 갔던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지난 2014년초에도 북남교위급접촉이 진행되고 있던지경에서, 친척상봉이 이루어지는 등 모처럼 대화와 관계개선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에 강행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순간간에 얼어붙고 대결과 전쟁위협만이 증대되었었다.

정쟁과 평화와 량립될수 없는것처럼 대화와 대결, 북남관계개선과 전쟁연습은 량립될수 없다.

침략적인 의제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에 매달리는것은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외세와 버리는 합동군사연습으로 현 북남관계개선편위기가 깨지게 된다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그에 추종한자들이 지게 될것이다. 김은철

# 민심의 랑대와 규탄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근 남조선에서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민심의 랑대와 규탄속에 백책당하고있다. 설명철을 계기로 진행된 여론조사들에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20%로서 더불어민주당(40%)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보수의 아성》으로 불리우는 경상도지역에서조차 지지율이 16%로서 여당(36%)에 비해 20%나 떨어져 우거지상이 된 《자유한국당》이다.

오는 6월에 진행되는 지방자치선거에서 여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자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겠다고 한 응답자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데 남 념의 민심은 《자유한국당》에 완전히 등을 돌려대고있다. 어찌 그렇지 않았는가.

지난 시기는 물론이고 최근에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은 북남사이에서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파국으로 몰아

가기 위해 별의별 추태를 다 부리고있다. 흉준표를 위시한 이자들은 일간 열면 《북에 의한 안보위협》을 떠들면서 마치 저들만이 《안보를 수호하는 안보정당》인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과거를 돌이켜보면 북남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전쟁위험이 고조되었는 다 보수 《정권》때였으며 특히 리명박, 박근혜집권 9년간 제대로 된 대화는 고사하고 조선반도정세가 사상최악의 상태에 처하였다는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남조선사람들이 이것을 모를리 없다.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이 현 당국에서 《안보불안정권》으로 몰아대고있으나 공화국의 주동적인 조치와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 북남대화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자 보수지지층까지도 《안보는 평화에서 온다.》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을 평화파괴세력, 전쟁세력으로 몰아내고있는 판이다.

《자유한국당》은 지금껏 박근혜, 리명박과 같은 인간 추물들을 기고들면서 비호두 논하느라 쓰레기정당이기도 하다. 최근 《박근혜, 최순실 추문사건》에 걸려든 박근혜당당이 련이든 재판들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데 이어 리명박역도까지 《국정원특수활동비상당사건》과 다스리사실소유자의혹사건의 주범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면서 사회적으로 보수패당에 대한 환멸이 극도로 달고있다.

결국 흉준표들이 지난 시기의 야습과 결별할것처럼 떠들어대는 《신보수》 타령은 굶아리던 적제의 중처에서 풍기는 더러운 악취에 불과하며 그것이 역겨워 보수지지층까지도 침을 뱉고있는 것이다.

지금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은 박근혜에게 반감을 품고 뛰쳐나간 김부성파를 받아들인데 이어 리명박장단인 전 《늘푸른한국당》의 리재오페를까지 껴안으면서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겠다.》고 횡설수설하며 민심을 유혹해보려 하고있다. 하지만 배신과 변절을 밥먹듯 하는 정치간사배들이 취파리매처럼 모여든 하나의 오물장에 불과한 《자유한국당》이 민심이 결을 줄리는 만무하다. 더우기 흉준표의 독단과 전횡이 도수를 넘는것으로 하여 《자유한국당》 내부의 《중진의원》들까지 집단적으로 반기를 드는 등 《자유한국당》은 풍전동화의 신세에 처해있다.

결론은 명백하다. 남조선 민심이 《무능정당》, 《부패정당》, 《대결정당》으로 낙인찍은 《자유한국당》은 력사의 쓰레기통에 스스로 처박히는것이 마땅하다. 본사기자 황금속

# 승냥이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아가는 승냥이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은것이다.

미국의 경제적압박소동은 남조선인민들의 고통을 더욱 악화하게 만들어 랑육의 제 배를 채우려는 파렴치하고 음모적인 처사이다.

사실이 그것을 립증하고있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미국의 《제네랄 모리스》는 2002년 남조선의 대우자동차를 인수하여 《한국GM》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현재 전라북도 군산시를 비롯하여 4곳에서 공장을 운영하고있다. 지금 《제네랄 모리스》는 남조선당국이 2월말까지 《한국GM》에 대한 지원결정을 하지 않으면 남조선공장을 5월말에 정식 폐쇄할것이며 나머지 공장들도 가동중단할것이라고 압박하고있다. 민일 《한국GM》 산하공장들이 모두 폐쇄되어 철수하면 3000여개의 관련업체들이 파산되고 30만명의 실업자로 전락되며 군산시의 경우 총생산액의 21.5%를 잃게 되어 지역경제가 파탄되게 된다고 한다. 실업자로 되는 30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경우 그들 대우수가 가장짓들

으로 하여 그에게 매여달려있는 수십만명의 가족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것은 물론이다. 이런것으로 하여 남조선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GM》 공장을 폐쇄하고 본토로 이전하겠다고 떠드는것은 30만명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 군산시를 《인질》로 삼아 대규모의 자금지원을 강요하는 류태없이 파렴치한 짓이라고 평하고있다.

남이야 죽든 살든 저들만 잘살면 된다든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가 내놓은 배설물이 바로 다음아닌 미국이 벌여놓은 《한국GM》의 폐쇄소동과 이전놀음이다.

문제는 미국의 경제적압박소동이 단순히 남조선인민들의 고통을 짜내어 제 배를 불리자는데만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라는것이다.

마지고보면 미국의 《제네랄 모리스》 회사의 지사인 남조선의 《한국GM》 공장은 2012년에 3억US\$의 적자를 내기 시작하여 2017년에는 이미 6억US\$로 늘어난 상태다. 그런데 미국은 예를 단지인 《한국GM》 폐쇄문

제를 질질 끌다가 이번에 급작스레 발표하였다. 그것도 남조선에서 겨울철을림피경기대회가 진행되고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민족의 기상과 존엄을 세계민방에 떨치며 온 겨레의 통일기운을 고조시킬 때이다. 여기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미국은 겨레의 뜨거운 통일지향과 념원으로 날로 높아가는 북남관계개선편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이번 사태를 조작한것이다.

남조선의 경제전문가들이 미국의 《제네랄 모리스》가 군산공장을폐쇄를 결정하자마자 트럼프가 의회관계자들앞에서 이번 결정은 자기의 공익을 위한것이 아니라라는생각지도 못했을 일이라고 떠들것을 보면서 이번 사태가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압박으로 북남관계개선편위기를 파탄시키기 위한 트럼프의 도적인 술책이라고 평하고있는것은 우연이 아니다.

트럼프가 이번 《전통적인 동맹국》들중에서 철강수출로 많은 후자를 보는 일본, 캐나다, 도이쾰란드는 제쳐놓고 유독 남조선만 무

악에 지나지 않는다. 겨울철을림피경기대회의 성공적개회를 담보되고 이번 대회가 남조선은 물론 세계평화에호인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속에서 진행될수 있는것도 다 공화국의 주동적인 참가에 의해 이루어졌다다는것은 내외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아마 보수패거리들에게는 공화국예술단의 노래소리와 《우리는 하나다.》는 응원단의 웨침소리 그리고 그에 화답하는 남녘인민들의 함성이 저들의 종말을 선고하는 조종으로 들릴것이다.

동족대결에 명줄을 건 흥준표와 조원진을 비롯한 보

수패당에게는 날로 고조되는 북남화해와 통일기운이 악몽이고 죽음일수밖에 없다.

민족의 독버섯이고 통일인민들의 남조선의 보수패당을 뿌리채 들어벌 때만이 평화와 통일을 앞당릴수 있다는것은 온 겨레가 이번 겨울철을림피경기대회를 계기로 새겨안은 또 하나의 교훈이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은 《울림은 민족의 빛과 원수를 가르는 중요한 계기》라고 하면서 《미국, 일본과 함께 수구보수세력은 민족의 암》 등으로 강력히 비난하고있다.

본사기자

의약품은 사람들의 건강증진과 병치료에서 없어서는 안될 기본수단의 하나이다. 평양시 선교구역에 자리잡고있는 평양제약공장은 갖가지 의약품들을 생산하는 공화국의 대표적인 제약공업기체중의 하나이다.

해방후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그때 벌써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평양제약공장을 창설할것을 직접 발기하시고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셨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공장을 안전한 지대로 옮겨 전시기민보건사업에 필요한 의약품들을 생산보장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서는 그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높은 수준의 자동장설비들과 현대식라장기를 비롯한 생산설비들과 기구들을 수없이 보내시어 공장이 대중의약품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의약품들을 생산하는 현대적인 공장으로서 되게 해주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속에 현대적인 의약품공장제생산공정이 새로 일떠섰다는 보고를 받으시었을 때에는 나라의 중대사를 토의하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도 뒤로 미루시고 공장에 찾아오시어 의약품공장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 주석님이다.

지난 1월 경에 하는

# 효능높은 의약품들을 생산한다

— 평양 제약 공장에서 —

최고령도자 김정일주석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이 어려어있는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평생을 마음쓰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인민을 하물처럼 여기시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깃들어있는 공장

은 오늘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절실히 필요한 갖가지 신약과 고리약들을 광범 생산하는 현대적인 공장으로서 전변되었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신약과 고리약들은 가지수도 많고 약효도 높으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의약품생산 및 품질관리기준에 맞게 생산과 품질관리를 엄격히 진행하여 의약품의 질을 담보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생산 및 품질관리기준의 요구에 맞는 통합생산체계까지 구축해놓음으로써 의약품생산과 품질관리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수 있게 되었다.

원료입고로부터 제분, 채취, 혼합, 건조, 타성, 성형, 당의, 피막, 포장 등 신약약장의 모든 생산공정들이 기술개건됨으로써 지난 시기



꿈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잠이 든 상태에서 사물현상을 의식하는 정신현상으로 해석되고있지만 의학적견지에서 보면 건강상태와 실제적으로 관련되어있다고 한다.

꿈을 자주 꾸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몸이 약해졌다는것을 의미하며 어떤 꿈을 꾸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건강상태를 해석한다고 한다.

레를 들어 간과 담낭의 경락기운에 이상이 생기면 심하게 다투거나 화를 내는 꿈을 꾸게 된다고 한다.

죽 꿈에서 심하게 다투거나 화를 내면 간이나 담낭에 이상이 있는것이고 음식이 모자라는 꿈을 꾸면 비장과 위저장의 기능이 약해졌다는것이며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꿈을 꾸면 콩팥의 기능이 약해졌다는것을 말해준다고 한다.

《동의보감》에서도 간의 기운이 허약한 사람은 쉽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강하며 간에 염증과 열이 있는 사람은 자주 화를 내거나 양염구리가 아프다는 호소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어떤 상태와 싸우거나 자주 화를 내는 꿈을 꾸는 사람은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몸을 지나친 피로가 쌓이지 않게 하는것과 함께 과다한 음주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몸의 기혈이 부족하고 간의 기능이 약해진 상태일 때에는 최소한 3개월이상 지나친 육체적부담을 피하고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는것이 중요하며 염증이 생긴 상태일 때에는 음주를 철저히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것이 좋다고 한다.

《일본서기》, 《고사기》 등 일본의 역사책들에는 조선사람들이 일본에 누에치기를 전파하였다는것이 두드러지게 반영되어있으며 뽕누에치기와 비단실생산은 조선사람들이 일본에 보급한 문명의 하나라고 서술되어있다.

우리 선조들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누에치기는 세나라시기를 거처 고국개민을 실현하였다.

《일본서기》, 《고사기》 등 일본의 역사책들에는 조선사람들이 일본에 누에치기를 전파하였다는것이 두드러지게 반영되어있으며 뽕누에치기와 비단실생산은 조선사람들이 일본에 보급한 문명의 하나라고 서술되어있다.

우리 선조들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누에치기는 세나라시기를 거처 고국개민을 실현하였다.

필적은 사람의 중요하고도 특이한 언어로서 사람마다 다르다. 얼핏 보면 필적과 개성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문짜이 뚜렷한 필적—진취감과 비판정신이 강하고 지도도능력이 있다.

힘있는 필적—의지가 굳세고 용맹하다.

미끈하고 고운 필적—성미가 온순하다.

대범하고 시원스럽게 보이는 필적—성격이 명랑하고 활달하다.

나약하고 잦이지 못한 필적—낙담하는것을 보여준다.

정연하고 짙은 필적—책임성이 비교적 강하다.

《동의보감》에서도 간의 기운이 허약한 사람은 쉽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강하며 간에 염증과 열이 있는 사람은 자주 화를 내거나 양염구리가 아프다는 호소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어떤 상태와 싸우거나 자주 화를 내는 꿈을 꾸는 사람은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몸을 지나친 피로가 쌓이지 않게 하는것과 함께 과다한 음주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몸의 기혈이 부족하고 간의 기능이 약해진 상태일 때에는 최소한 3개월이상 지나친 육체적부담을 피하고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는것이 중요하며 염증이 생긴 상태일 때에는 음주를 철저히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것이 좋다고 한다.

《일본서기》, 《고사기》 등 일본의 역사책들에는 조선사람들이 일본에 누에치기를 전파하였다는것이 두드러지게 반영되어있으며 뽕누에치기와 비단실생산은 조선사람들이 일본에 보급한 문명의 하나라고 서술되어있다.

우리 선조들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누에치기는 세나라시기를 거처 고국개민을 실현하였다.

# 사람의 필적과 성격

필적은 사람의 중요하고도 특이한 언어로서 사람마다 다르다. 얼핏 보면 필적과 개성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문짜이 뚜렷한 필적—진취감과 비판정신이 강하고 지도도능력이 있다.

힘있는 필적—의지가 굳세고 용맹하다.

미끈하고 고운 필적—성미가 온순하다.

대범하고 시원스럽게 보이는 필적—성격이 명랑하고 활달하다.

나약하고 잦이지 못한 필적—낙담하는것을 보여준다.

정연하고 짙은 필적—책임성이 비교적 강하다.

세련되고 믿음성있는 필적—비교적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있다.

통쾌하고 간결한 필적—에너지와 지혜가 있고 일처리속도가 빠르다.

통두사미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필적—인내성과 참을성이 부족하다.

어울러 한덩어리로 된 필적—사유가 활발하고 창조적인 정신이 높다.

종이에 글을 쓸 때 언제나 우로 약간 비스듬히 올라가는 필적—항상 득의양양해하거나 자아자각이 매우 좋다.

제일 나중에 쓰는 획이 밖으로 비교적 길게 뻗은 필적—창조정신이 높다.

《일본서기》, 《고사기》 등 일본의 역사책들에는 조선사람들이 일본에 누에치기를 전파하였다는것이 두드러지게 반영되어있으며 뽕누에치기와 비단실생산은 조선사람들이 일본에 보급한 문명의 하나라고 서술되어있다.

우리 선조들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누에치기는 세나라시기를 거처 고국개민을 실현하였다.

《일본서기》, 《고사기》 등 일본의 역사책들에는 조선사람들이 일본에 누에치기를 전파하였다는것이 두드러지게 반영되어있으며 뽕누에치기와 비단실생산은 조선사람들이 일본에 보급한 문명의 하나라고 서술되어있다.

우리 선조들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누에치기는 세나라시기를 거처 고국개민을 실현하였다.

# 유모아

어느 마을의 옥심났고 사나운 한 지주가 농군에게 쌀 몇 되박 꾸어주고는 실날 그믐날에 그 소작인농부를 불러 배일은 실날이니 꾸어준 쌀 값대신 백선가지 음식을 해오라고 강박하였다.

농부는 걱정끝에 안해에게 그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안해는 고약하기 그지없는 지주를 되게 팔랑머리리라 마음먹고 자기 남편을 안심시켰다. 그리고는 다음날 음식상을 자기 집에 차려놓고 지주를 불러오게 하였다.

지주가 소작인농부를 따라 방에 들어오니 상우에는 흰 김치(백김치)와 흰 가지채가 놓여있었다.

그것을 본 지주는 분통하여 《이놈, 그래 두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백선가지 음식

을 차렸다고 나를 불러왔느냐?》하고 호통질을 하였다.

그녀는 호통을 듣지 않고는 농군의 안해가 나서며 하는 말이 《백가지(백김치) 김치에 다 흰 가지채를 마련하였으니 백선가지가 아니오이까?! 나라의 임금님도 백선가지의 음식은 잡수셔본 일이 없사옵네 하물며 작은 촌락의 지주어른이 백선가지의 음식을 찾으시니 백성들은 백김치에 흰 가지채를 찾는줄밖에 알 도리가 있겠나이까.》 하고 죄목을 짚어가며 송사하듯이 여여대는것이었다.

지주는 농군안해와 맞섰다가는 창피를 당하는것은 둘째치고 역적죄에 걸려들것 같아 아무말도 못하고 입만 짹짹 다니다가 쫓겨났었다.

《일본서기》, 《고사기》 등 일본의 역사책들에는 조선사람들이 일본에 누에치기를 전파하였다는것이 두드러지게 반영되어있으며 뽕누에치기와 비단실생산은 조선사람들이 일본에 보급한 문명의 하나라고 서술되어있다.

우리 선조들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누에치기는 세나라시기를 거처 고국개민을 실현하였다.

《일본서기》, 《고사기》 등 일본의 역사책들에는 조선사람들이 일본에 누에치기를 전파하였다는것이 두드러지게 반영되어있으며 뽕누에치기와 비단실생산은 조선사람들이 일본에 보급한 문명의 하나라고 서술되어있다.

우리 선조들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누에치기는 세나라시기를 거처 고국개민을 실현하였다.

에 비하여 생산량과 제품의 질이 훨씬 높아졌다.

고리약직장에서 추출, 농축, 조합, 숙성, 포장을 비롯한 생산공정들에 대한 기술개건이 진행되었는데 약초선별기, 세척기, 건조기, 제분기와 같은 많은 설비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재의 힘과 기술로 만든것들이다.

공장에는 각종 의약품들의 제법검사장 정성적으로 할수 있는 종합분석실과 공장종업원들이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내갈수 있게 하는 과학기술보급실도 훌륭히 꾸려져있다.

공장의 포장재직장에서는 여러가지 신약과 고리약들을 포장하는데 필요한 각종 용기들을 자체로 생산하고있다.

이렇듯 현대적으로 꾸려진 공장에서 생산되는 갖가지 신약과 고리약들은 그 질이 좋고 효능이 높아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가르쳐주신대로 공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제약공장으로 전변시킬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그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이고있다.

이렇듯 현대적으로 꾸려진 공장에서 생산되는 갖가지 신약과 고리약들은 그 질이 좋고 효능이 높아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가르쳐주신대로 공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제약공장으로 전변시킬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그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이고있다.

이렇듯 현대적으로 꾸려진 공장에서 생산되는 갖가지 신약과 고리약들은 그 질이 좋고 효능이 높아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가르쳐주신대로 공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제약공장으로 전변시킬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그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이고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 민족문화유산들을 빛내여간다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내려오면서 창조되고 계승발전되어온 우수한 민족문화유산들은 우리 겨레의 더없는 자랑으로, 긍지로 되고있다.

공화국의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서는 우수한 민족문화유산들을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있다.

등록된 국가비물질문화유산가운데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건축술을 보여주는 조선식지방양식과 조선식탑건축기술, 전통적인 민족음식인 추어탕과 전갈 그리고 조선장기, 비단생산기술 등이 있다.

조선식지방양식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오늘까지 전해 내려오면서 우아하고 아름다운 곡선미로 특징지어지는 전통적인 지방형양식으로선 조상들이 창조한 우수한 문화전통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데서 가치있는 유산으로 되고있다.

조선식탑건축술도 고구려시기부터 높은 발전면모를 가지고 전해져오는 세상에

자랑할만 한 우수한 탐들을 일떠세우는데 리용된 전통적인 탑건축기술로서 건축에서 민족적특성을 살려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추어탕은 우리 민족의 독특한 음식문화를 자랑하는 유산이다. 개성지방의 특산으로 발생하여 그 영양학적 및 식용가치로 하여 전국에 널리 퍼진 특색있는 민족음식이다.

고기, 물고기, 남새 등 음식감들을 넣고 국물을 조금 부어 끓여 먹는 전갈 역시 민족음식의 향취를 더해주는 명료리라고 할수 있다.

전갈의 병사들이 전투에서 쓰는 전립(지금의 철갑모와 같은것)에 음식을 모아 넣고 끓여 먹기 시작하는데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전갈은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재료에 따라 소고기전갈, 닭고기전갈, 나지전갈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맛은 참으로 유별나다.

우리 선조들은 오랜 옛날부터 명주실로 짠 여러가지 비단천을 리용해왔으며 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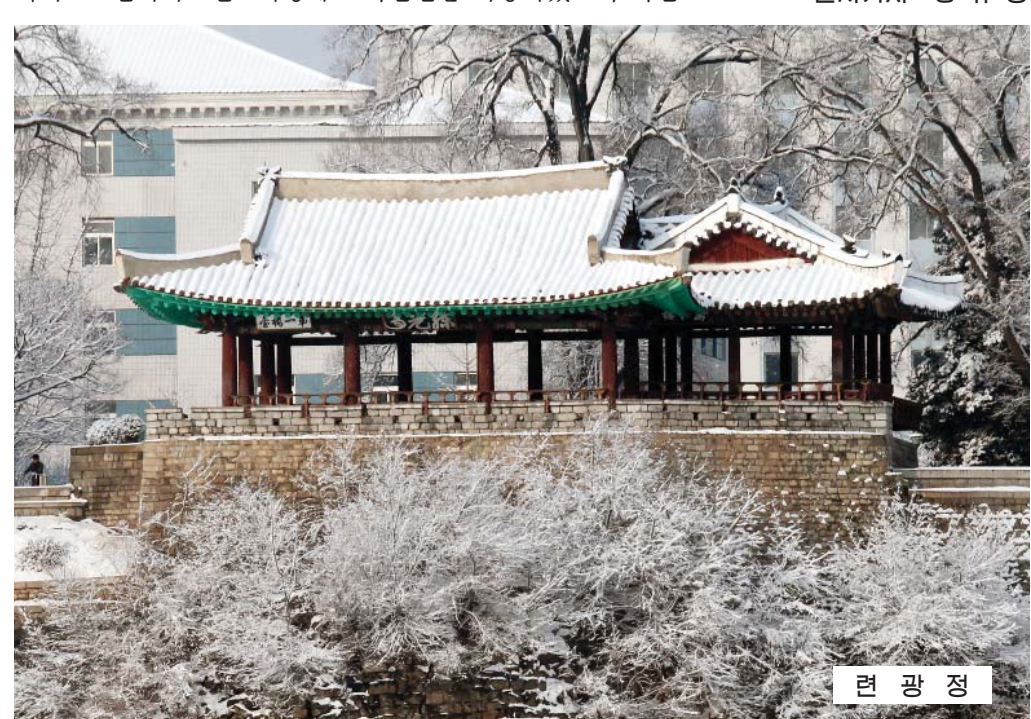
을 통한 무역을 활발히 벌려왔다.

비단은 여느 천들보다 가볍고 빛깔이 우아하며 손맛이 매우 부드러운 자연섬유직물이다. 비단생산기술은 고조선시기부터 현재까지 조선옷의 기본오감으로 리용되어오면서 다양한 색깔과 무늬를 가진 아름다운 천으로 발전하여온 비단을 만드는 전통적인 기술이다.

그 시원을 고려 이전으로 보고있는 조선장기는 우리 겨레가 즐겨해온 민속놀이이다. 세계적으로 몇가지 종류의 장기(유포장기, 동양장기)가 있는데 말수와 노는 방식이 꼭같지 않다.

장설미 민족유산보호지도국 부원은 이렇게 말하였다.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 앞으로도 우리 민족의 귀중한 유산들이 민족번영의 재부호, 인민들의 향유물자로 되게 하기 위해 많은 사업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겠다.》

본사기자 박철남



연 광 정

—음식감을 재울 때—

• 짭짤함은 가공방법에 따라 알맞도록 넣어야 한다.

• 양념장은 음식감에 골고루 묻게 하여야 한다.

• 시간조절을 잘해야 한다. 잡맛이 없고 생선 한 음식감은 짧은 시간 재워야 한다.

• 음식감의 특성에 따라 향신료를 넣어야 한다. 실례로 비린내나 노린내가 센 음식감에는 파, 고추, 방아꽃,

술, 월계수잎 등을 써야 효과를 볼수 있다.

—음식은 적당한 시간 끊어야 한다—

기름진 고기나 뼈는 일정 시간 끓이면 기름이 많은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나 닭알도 오래 끓이면 색깔이 거무스레해지고 구멍이 생기면서 굳어져 맛이 없게 되므로 적당히 끊어야 한다. 남새국은 15분정도 끓이는것이 좋다.

문에 영양가와 소화효율이 떨어진다. 물고기는 너무 오래 끓이면 살이 흩어져 불품이 없어지고 맛도 떨어진다. 때문에 물고기는 15~20분정도 끓이는것이 좋다.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나 닭알도 오래 끓이면 색깔이 거무스레해지고 구멍이 생기면서 굳어져 맛이 없게 되므로 적당히 끊어야 한다. 남새국은 15분정도 끓이는것이 좋다.

본사기자

# 본 개 (2)

글 김교식, 그림 박봉혁

억울하고 전대반던 백성들이었다.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리순신이 출진하여 적수군합대를 크게 깨뜨리고 특지에서는 부원수 신각이 양주 해유령싸움에서 승전한바에는 이렇다할 승리를 기록할만 한 전투가 없었다. 이렇고 이렇고 백성들이 의병에 떨쳐나섰었다. 이에 힘을 얻은 최경회는 스스로 의병장이 되어 의기있는 용사 수백명을 모았다.

그는 일정한 준비를 갖춘 다음 수하의 의병들을 거느리고 여러곳의 적들을 불의에 기습하여 적지 않은 전과를 거두수 있었다.

의병들은 여기저기서 다루어 일어났다. 이로 하여 왜적들은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대오를 수습하여 재편성한 조선관군도 새로이 공격을 개시하였다. 형세는 달라졌다.

서북쪽으로 평양, 동북쪽으로 회령까지 침입하였던 왜적들이 조선관군과 의병들의 드센 반격을 받고 이듬해 초봄 경상도일각으로 압축당

하였다.

그중에서도 연안성, 진주, 행주싸움에서의 큰 승리는 사나운 왜군의 기세를 저지 없이 꺾어놓았다. 흉악무도한 왜적수들은 이를 갈았다. 이들은 경상도의 거울이며 전라도에도 밀고들어갈수 있는 유리한 지점에 위치한 진주를 어떻게 하나 다시 공략해볼 심산밑에 있는 력량을 총동원하기로 하였다.

그러하여 왜적의 우두머리인 우끼다 히메이에(부원수가)가 지휘하는 12만 3천의 무력이 진주성으로 밀려들었

은 형편에 있었다.

권력은 왜군이 세가말게 밀려드니 하는수없이 군사를 거느리고 남원으로 후퇴하였으며 의령에 있던 순찰사 리빈의 부대도 전라도쪽으로 옮겨앉아버렸다.

이로부터 진주성은 고립무원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렇지만 죽음을 각오한 의병장 김천일의 휘하의 의병들을 거느리고 진주성으로 들어갔다. 그는 진주성을 기어올라 지키는것을 하늘을 우러러 맹세했다.

최경회도 애국충정이 넘치

에 군사장비를 비롯하여 무엇이든 허술하기 이룬데 없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지난해 싸움에서 파피당한 성벽은 대충 보수했고 병쟁기도 너무 모자랐다. 그리고 성안의 무력은 3천명안팎으로서 적의 병력상대비는 무려 40대1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가장 정예한 군사들로 대오가 꾸러지고 방위책이 튼튼히 서있다고 하더라도 적은 리승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하물며 여러 시설이 불비하고 잘 훈련된 관군도 아닌 의병들로서 어떻게 수십배의 총악한 왜군을 막아낼수 있랴.

그동안 의병장인 남편을 줄곧 따라다니던 문개도 이 정도는 능히 짐작할수 있었다. 그레 문개는 진주성에 들어가고 서두르는 최경회를 극력 만류했었다.

《나오리, 지금 그 사지로 가시느것이 불가할줄로 압니다. 적세는 자못 등등한데 고단한 우리 군사의 군량과 병쟁기도 모자라는 어려운 형편에서 어떻게 그 흥행한 장적과 맞서서 싸우시겠다고 그러십니까. 권태감처럼 일시적의 예봉을 피하셨습니다가 기회를 보시어 적을 치심이 좋지 않겠는지 저의 열은 소견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들은 최경회는 절절 웃었다.



다. 이는 경상도일각에 집결된 관군의 거의 전부였다. 당시 도원수 김명원이 지휘하는 관군의 주력은 서산을 진을 쳤고 권ભ의 군사는 성주군으로부터 함안으로 내려와있었는데 군량이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여 매우 어려

는 창사 김천일의 호소에 응하여 의병들을 이끌고 진주에 입성하였다.

진주성의 방어준비는 예상한것보다도 더 못하였다. 진주 목사 서세원이 군량보급사업을 맡아보다가 불과 며칠전에 진주로 돌아왔기때문

다. 이는 경상도일각에 집결된 관군의 거의 전부였다. 당시 도원수 김명원이 지휘하는 관군의 주력은 서산을 진을 쳤고 권ભ의 군사는 성주군으로부터 함안으로 내려와있었는데 군량이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여 매우 어려